

##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 부흥 성지서 순례 기도

지난 13일 남가주 교계 및 단체 지도자들을 비롯해 지역 목회자들이 남가주 부흥의 성지를 답사하며 부흥성지 순례 기도를 가졌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의 준비위원들과 후원교회 관계자들도 부흥 성지를 돌아보며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대회장 한기홍 목사)에서 주관한 이번 기도는 남가주 부흥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남가주와 미국, 전세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참석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오전 7시에 은혜한인교회에 집결해 버스로 이동했고, LA지역에서 모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아침 8시에 주님의 영광교회로 모였다.

개회 기도회는 강태광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환영 인사, 강순영목사(실행위원장)의 일정 안내와 합심기도와 이종용 목사(공동대회장, 코너스톤교회)의 마무리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순례기도회는 부흥성지에 대한 역사



아주사 부흥이 시작된 Bonnie Brae House 기도처에서 참석자들이 기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 의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장 기도회로 구성됐다. 순례기도팀은 빌리그레함 천막집회 현장 기도, 아주사 성령의 기쁨 부흥심현장 기도, 아주사 부흥 기간 기도처 Bonnie Brae House 등 다양한 부흥의 현장과 역사

현장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또 LA 시청 앞에서는 미국 정치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했으며, 그리피스 전망대와 할리우드 장로교회 헨리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 기념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

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등 남가주와 이 시대가 부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점심식사와 함께 가진 나눔의 시간에 참석자 모두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 교회와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길 원한다면서, 각 교회 성도들을 인솔해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순례 기도회는 한기홍 목사(미주 CBS 대표)의 폐회 기도회로 전체 모임을 마쳤으며, 각 기도회 마무리 기도자는 다음과 같다. 빌리그레함 집회장소(박용덕 목사), 아주사 부흥현장 기도회(심상은 목사), Bonnie Brae House 기도회(민경엽 목사), 시청통과하며 미국 정치 지도자 위한 기도회(이서 목사), Griffith 전망대에서 드리 LA 축복 기도(김은목 목사), 대학생과 대학가 부흥기도(오윤태 목사), 할리우드 장로교회(김기동 목사), 할리우드 문화 예술(김영구 목사), 점심 식사 기도(김영일 목사).

김동욱 기자

## 美 텍사스 41개 교회, UMC 공식 탈퇴

### 연회 측, 특별회의 투표 통해 확정 "축복하며 보내 주려"

미국 텍사스에 있는 41개 교회가 동성애를 둘러싼 교단 내 지속적인 논쟁에 대응해 공식적으로 연합감리교회(이하 UMC)를 떠났다.

UMC 북텍사스연회는 이전에 지역 기구에 속했던 41개 교회들과 관련해 특별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탈퇴를 승인했다.

연회 대변인은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지역 연회는 이 교회들을 온전한 축복하며 보내 주고자 한다. UMC를 떠나려는 교회들은 탈퇴를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북텍사스연회에는 230개 이상의 교회가 UMC의 사명과 가치에 계속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며, 특히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또 가난한 이들이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자비와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UMC 장정에 따르면, 교단은 동성애를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성 결합 축복'과 '독신이 아닌 동성애 성직자의 안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UMC는 이 공식 입장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왔으며, 많은 진보적 지도자들은 그 같은 규칙 시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2020년 1월, 신학적으로 다양한 연합감리교 소속 단체들이 함께 모여 현재 기준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 교단을 만들고 나머지 회원 회중은 규범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안하고, UMC는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도록 했다.

이 타협안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은 당초

2020년 5월 UMC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이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됐다.

UMC가 지난 2022년 3월 계속되는 팬데믹 우려에 대해 총회를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후, UMC 내 보수주의자들은 5월에 세계감리교회(GMC)를 발족했다.

UM News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 1,800개 이상의 교회가 성공적으로 UMC에서 탈퇴했으며, 그 중 수백 개의 교회가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다.

텍사스연회는 294개 교회를, 북텍사스연회는 145개, 중앙텍사스연회는 81개 교회를 잃었다.

지난 6월에는 100개 이상의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기 위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한 UMC 플로리다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총액은 앞서 언급한 당



©UMC 노스텍사스 연회

사자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상당한 액수이고 협상할 수도 호소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연회 측은 "협상 과정에 교회들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그들이 이를 거부하고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며 "갑작스러운 이별은 봉사에 평생을 바친 은퇴한 목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혜택과 연금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한)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경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 OC 여성목회자협의회 “돕는 베필의 역할 해나갈 것”

[인터뷰] 제8대 회장 이경신 목사



©오렌지카운티여성목회자협의회 이경신 회장

오렌지카운티여성목회자협의회(이하 여목회) 이경신 회장은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협회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키다보니 회장까지 하게 됐다”며 겸손한 말로 인사를 나눴다. 제 8대 회장인 이경신 목사는 지구촌사랑의교회 담임이기도 하다. 이선자 목사가 여목회를 창립했을 당시 서기로 섬긴 창립 멤버로 이후에도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섬겨온 그녀는 올해 회장직을 맡으면서 ‘친목’과 ‘연합’을 키워드로 꼽았다.

여목회의 창립 목적 자체가 오렌지 카운티 내 여성 목회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친목 모임이다. 꾸준히 나오는 회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원도 있지만, 모임 때는 서로 은혜도 나누고 못다한 수다의 꽃도 피우며 눈물 날 정도로 웃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 된다고.

나아가 여목회는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협의회 산하 6개 기관 가운데 하나로 행사 때마다 발벗고 나서 보이지 않는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성실히 제 몫을 해

나가고 있다. 섬세하고 묵묵하게 딱히 드러나진 않지만 없으면 뭔가 마음 한 편이 허전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뒤에서만 섬기지는 않는다. 미자립교회 여성목회자를 돕기도 하고, 부흥회와 건강 세미나도 하고, 선교헌금도 틈틈이 보내고 양로병원도 방문해 위로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흡리드들을 찾아 커피와 도넛을 나누며 예배도 드린다.

활발해지던 모임이 팬데믹을 지나며 여느 다른 모임처럼 규모가 축소되고 활력이 떨어진 면이 없진 않지만 이제 8년차가 되거나 좀 더 자리잡고 여성 목회자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 열어 놓으신 길을 열심히 또 신나게 달려나가고 싶다고 이경신 회장은 밝혔다.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베필로 지으셨어요. 항상 낮은 자리 어딘가, 우리가 죽어야 남을 살리고, 희생해야 누군가 변화된다면 여목회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미국에 특별히 외롭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여성 목회자협의회 회원들이 더욱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사랑을 듬뿍 담은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웃어주고, 힘을 주면서 다른 협회나 기관들과 협력한다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성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여성목회자협의회에 동참할 수 있으며, 회비는 일년에 200불이다.

문의 714-745-2348

김민선 기자

# 김양재 목사 “교회 부흥의 원리,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아니라...”

제2회 THINK 목회세미나에서 우리들교회 사역 소개



ANC온누리교회에서 제2회 THINK 목회세미나를 인도하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기독교일보

분당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남가주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제2회 THINK 목회세미나를 인도했다.

김양재 목사는 목회자,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간증과 함께 우리들교회 큐티 사역의 실제 사례를 전하며 우리들교회에 임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을 소개했다.

세미나 제목인 THINK THINK에서 T(telling)는 죄의 고백과 간증, H(holifying)는 거룩한 삶, I(interpreting)는 큐티, N(nursing)은 공동체 돌봄, K(keeping)는 가정중수라는 우리들교회 핵심 사역을 담고 있다.

‘목욕탕교회’라고도 알려진 우리들교회에는 이혼과 자녀문제, 불륜, 자살, 재정 위기 등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치유와 회복을 경

협하는 사제가 계속되고 있다.

세미나에서 김양재 목사는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닌, 교인들의 영적 건강에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남을 강조했다. 그는 새신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의 멤버십을 갖게 하라고 조언했다.

김 목사는 “고난 받는 사람들이 회개함으

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경적 원리가 교회 안에서 통용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며 “모이면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사명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큐티를 삶에 적용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들교회는 20년 전 김양재 목사가 13가정과 함께 개척해 영혼 구원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교인 한 사람을 돌보는 목회로 현재는 1만 8천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단순함을 통한 깊이를 추구하며 영혼 구원과 가정을 거룩하게 빚어가는데 목회 초점을 맞췄다. 성도들은 목장과 주일 예배에서 자기 삶을 간증하며 나눔이 가능한 고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들교회는 죄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로 읽어나가는 큐티 운동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또한 서로 다른 고난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아돌람 굴과 같은 공동체에 모여 서로를 돌보며 섬기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동욱 기자



©성서장로교회 창립 제 54년 기념예배

# 성서장로교회, 창립 제54년 기념예배 은혜 가운데 열려

성서장로교회(담임 정충일 목사) 창립 제 54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주일(12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정충일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정동철 장로의 대표기도, 초대 담임 목사인 나민주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나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3-20절을 본문으로 ‘정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

한, 엘리아,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답했다”고 강조하며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특별 순서로 신사촌 목사의 찬양, EM의 하모니카 연주, 정지윤 목사의 시낭송, 2대 담임목사인 김병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감동 가운데 마쳐졌다. 이후 교회에서 준비한 친교를 나누며 다 같이 기쁨을 나눴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이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때가 되었으므로 디모데 목회훈련원에서 전도집회 및 특강을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도간증집회

### “이제는 전도다”

강사: 이영희 전도사  
한울교회 전도사  
여러교회 전도집회 인도  
8000명을 전도하신 분  
일시: 3월17일(금) 오후 8시  
3월18일(토) 오후 7시

## 특 강

###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

강사: 이용걸 목사  
총신대학 및 총신연구원 졸업  
PA Eastern College 졸업  
웨스트민스터 졸업(선교학 석사, 목회학 박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개척, 35년 사역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일시: 3월20일(월)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나성 한인교회 (신동철 목사 시무)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등록 및 문의: 김만식 목사  
714-873-7404 Email: lacpckm@gmail.com  
\*점심식사 및 기념품 준비를 위해 3월15일 까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이용걸 목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PTSI 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For Church Growth www.ptsimission.org

주관: 디모데 목회 훈련원  
후원: 나성한인교회,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동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서가주노회, 서남노회, 북미주 서노회



# 나성영락교회, 새로운 부흥 향해 “Y vision” 선포

### “예배·친교·교육·선교·봉사로 하나님의 사람 일으켜 세울 것”

나성영락교회 담임 박은성 목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Y vision”을 선포하고, 교회가 앞으로 추구할 50년의 비전과 방향을 소개했다.

박은성 목사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 완수와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 계승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People of God)을 세우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나성영락교회가 앞으로 추구할 비전으로 예배와 친교, 교육과 선교, 봉사를 꼽았다.

비전 성취를 위한 실행 사안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예배를 위한 심미적 공간과 장비 구축(예배), 교인과 주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교제의 자리 제공(교제), 공교육의 위기에 따른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교육), 남미·아프리카·아시아·유럽을 향한 선교 중심지 확대(선교), 교인과 이웃을 위한 의료 요양시설,



교회 창립 50주년의 감격을 전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하는 박은성 목사 ©기독교일보

노인 주거 시설, 문화 시설 건립(봉사)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성영락교회를 위해 오래 전부터 예비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대지와 인력을 기도와 지혜로 잘 선용한다면 이 비전 안에 제시된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는다”며 “나성 영락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

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영원한 기쁨으로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성영락교회의 예배로 인해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창립 50주년, ‘희년’(Jubilee)을 맞은 나성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희년의 큰 기쁨과 감격을 재현하며, 지난 반세기 세월을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달려갈 50년의 비전과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로 이루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동욱 기자

## JMS 2인자 “이젠 진실 바라보자”... 내부 분열 시작?

### 12일 ‘지도자 모임’ 갖고 울먹이며 발언

정명석의 후계자 혹은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 씨가 “여자들이라면 선생님(정명석) 옆 3m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제는 진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며 정명석의 범죄를 고발했다.

정 씨는 12일 자기가 이끌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 모임’을 열고 이 같이 발언했다. 정 씨는 발언 중 때론 울먹이기도 했다. 이 내용은 JMS의 교리를 홍보해 왔던 공식 채널에 오늘(13일) 업로드됐다. JMS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발언으로 추정되는 메시지에서 “여전히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며 모든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만 하면서 이것이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만들어내며 진실을 들여다 보고 해결하지 않고 마녀사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모든 진실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아는 내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다”며 “모든 방송이 조작인가. 모든 것이 악평인가. 조금 힘겹지만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씨는 “수십 년이 넘도록 은혜하고 가리며 걸으려는 ‘영사랑’을 말하고 실제로는 ‘육사랑(성적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에게 묻는다. 조은이는 몰랐냐고? 저는 1998년 말에 전도됐다. 어렵듯이 알았다. 17세.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무엇을 알았겠



13일 JMS 공식 채널에 올라온, '2인자' 정조은 씨의 지도자 모임 모두발언 영상. ©JMS

느냐. 고로 알았으나 몰랐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18년부터) 3년 6개월을 선생님(정명석)께 눈물로 호소했다. 이건 절대 뜻 아니라고, 이건 절대 뜻이 될 수 없다고. 때로는 너무 괴로워 소리도 질러 봤다.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 봤다. 여자들이라면 선생님 옆에 3m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울먹였다.

그는 “과오가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가야 한다. 묵인과 침묵, 은폐로 생명을 붙잡으면 안 된다”며 “90% 이상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우리는 무고하다’고만 하니, 이제는 더 늦게 전에 이렇게나마 진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정명석의 미성년자 성폭행, 신도 진술 강요 및 진술서 번복 등의 내용을 인정하고, 그간 단체 내에서 자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대화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기자

##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10 만달러 성금 쾌척



오픈뱅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나눔 프로젝트를 해 오고 있다.

한인 사회 및 여러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을 실천을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성금 10 만달러를 쾌척한다.

오픈뱅크(행장 민 김)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도은석)의 이사회는 지난 주 이사회를 통해 강진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호 성금 10 만달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이 성금을 2일 오후 2시 LA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 한인회에 전달하고 국제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재난지역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쓰여지게 된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UNICEF를 통해 성금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LA 한인회도 UNICEF를 통해 성금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돼 한인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한인사회 전체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아 LA 한인회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은 “상상도 하기 힘든 큰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사회 논의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저희 오픈뱅크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그동안 Covid-19 및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 성금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16년 블루컷 산불피해를 입은 한인 가정들을 돕기 위해 1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고 Covid-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한인요식업체를 지원하는 100만 달러 지원 프로젝트, LA 한인회의 3차와 6차 구호 기금에 총 6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문의 : 213-593-4885

김민선 기자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0%이자가능

##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213.2949.433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북한 억류 김국기 목사 부인 “살아 있다는 소식만이라도...”

### 남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VOA에 전달

북한에 8년째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의 부인이 남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의 내용을 미국의소리(VOA)가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목사의 아내 김희순 씨는 VOA에 전달한 서한에서 남편의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당신 혼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희망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어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올해 당신 칠순인데 꼭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며 김 목사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김국기 목사는 2000년대 초반 북한 선교를 위해 중국 단둥으로 파송돼 그곳에서 컴퓨터 등을 운영하며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



(왼쪽부터)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선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5년 김 목사를 체포한 뒤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목사 소속 교단(예장 합동중앙총회)과 지인들은 북한 정권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왔다고.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1월 개시한 전세계 정치범 석방 캠페인(‘정당한 이유 없이-Without Just Cause’)에 김 목사를 소개하면서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오랜 시간을 바쳤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

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김국기 목사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북한에는 현재 김국기 목사를 비롯해 김정욱·최춘길 선교사, 그리고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출신 등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억류자 부분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권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수교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임원진과 면담하기도 했다.

당시 참석했던 이철 감독회장은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올해 본국 다수 신학교 ‘목회학 석사’ 입학정원 미달

국내 각 신학대학원의 올해 목회학 석사(M.Div) 입시 현황은 입학정원을 겨우 채우거나 대부분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 측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신학대학원의 올해 입시경쟁률은 0.94:1을 기록했다(모집 정원은 343명). 2022학년도 경쟁률(1.13:1) 대비 하락한 수치로, 1980년 총신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원 미달 사태를 맞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측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이후정) 신학대학원의 올해 입시경쟁률은 0.56:1을 기록했다(모집 정원은 146명). 지난해 경쟁률(0.87:1)에 이어 올해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기독교대한성경교회(총회장 김주현 목사) 측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신학대학원의 올해 입시경쟁률은 0.82:1을 기록했다(모집 정원은 135명). 지난해 경쟁률은 모집정원 160명 중 161명이 지원해 1:1을 기록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강연홍 목사) 측 한신대(총장 강성영) 신학대학원의 올해 입시경쟁률은 0.57: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0.45:1)에 이어 올해도 미달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측 산하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 신학대학원의 올해 목회학 석사(M.Div) 입시경쟁률은 모집 정원 264명 가운데 1.44:1을 기록했다. 미달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경쟁률



(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한신대, 침신대, 서울신대. ©기독교일보DB

(1.8:1)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치다.

예장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 측 산하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 신학대학원의 올해 목회학 석사(M.Div) 입학정원은 전·후기 통틀어 총 300명인데, 전기 입시모집의 입학정원은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신학교들이 목회학 석사 과정(M.Div)에서 정원 미달사태를 겪을 경우 목회적 자질이 없는 지원자도 입학원서만 낸다면 합격할 수 있어, 향후 한국교회 목회 현상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정원 미달 사태를 겪지 않았지만 엄밀한 선발과정을 통해 모집 인원보다 밀도는 인원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선발한 신학교도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김인환 목사) 측 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 신학대학

원의 올해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모집 정원 205명 가운데 154명을 선발했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지원율은 입학 정원 205명 중 221명이 지원한 1.07:1을 기록해 정원 미달사태는 겪지 않았다. 하지만, 입학 정원 전체를 채우지 않은 채 목회자 후보생 192명만 선발했다.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은 92.2%로 나타났다.

침신대 관계자는 “신학교는 성도들을 바

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회자로 키워야 하는데, 목회적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며 “목회학 석사과정 지원자에 한해 교수님들의 철저한 면접 과정을 거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된다면, 신입생 총원율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했다.

송실대 기독교대학원 명예교수 김영한 박사는 “세상을 극복하기 보단, 세속을 쫓는 교회가 늘고 이로 인해 실망감을 느낀 젊은이들의 목회 지망율이 떨어지는 등 한국교회는 교세 축소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각성시키고, 장래에 부흥과 소망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위기”라고 했다.

이어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신학교의 위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성을 잘 듣고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적극 회개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목회 지망생들도 늘어나, 신학교 입학 정원 미달 사태는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MA 주 FEEDING HILLS에 위치한 미국 하나님의 성회(AG)소속 갈보리 교회에서는 은퇴하시는 현 목사님을 이어 후임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 경력 : 이민 목회 3년 이상 (부목사 경력 포함)
  - 본 교단 목사, 타 교단 목사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AG)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으로 영주권 후원 가능
  - 학 령: M.Div.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1부
  - 본인 및 사모의 자기 소개서 각1부
  - 학위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 추천서 2부 (응시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 교단 및 지방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목사와 그 외 1인) 추천인이 연락처 기재하고 직접 제출
  - 주보 2회분 (현 시무 교회 최근 3개월 이내)
  - 설교동영상 2회분 (현 시무교회 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함) 1부
-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3년 4월 30일
  - 제출 : email (calvarychurchcalling2023@gmail.com) 또는 우편(P.O.BOX 311, EAST GRANBY, CT 06026)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담임 목사 청빙용으로만 사용되며 청빙완료 후 폐기됩니다.
  -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email(calvarychurchcalling2023@gmail.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교회 청빙위원회**

## WPC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공고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 총노회에서 전도사,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공고합니다.**

- 고시 일자: 2023년 7월 15일 (토) AM 10시
- 고시 장소: 조이폴교회 (담임 김정호 목사) (866 S Westmoreland Ave. # 200, LA, CA 90005)
- 전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생으로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8장 제55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총회가 인정(인준)하는 신학교 (M. Div)를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 목사고시 응시 자격: 본 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
-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2023년 4월 21일 (금) 오후 5시까지
- 전도사고시 과목: 성경, 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 헌법 (예배 모범, 정치), 면접.
- 강도사고시 과목: ① 제출 과목: 논문과 주해 및 설교. ② 시험 과목: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면접.
- 목사 고시 과목: 12신조, 교회 헌법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정치) 면접

\* 문의처: 고시 부장 김성권 목사 (213 503 9943) 고시부서기 노명구 목사 (213 505 3720)  
\* 타 교단도 고시 문의 요망.

**Petra University**  
F-1 유학생 모집  
B.Th, M.Div, D.Min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페트라대학교 (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petrauniversity.org](http://www.petrauniversity.org)

세계예수교장로회 (World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LA 중앙 총노회 고시부 (LA Central Synod Qualification Exam Office)  
총 노 회 장: 김정호 목사 (직인생략)  
고 시 부 장: 김성권 목사 (직인생략)  
고시부서기: 노명구 목사 (직인생략)



# JMS 정명석 파문...예장 합동 “이단·사이비 철저히 배격”

최근 JMS 정명석 등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이단·사이비를 철저히 배격하자”고 요청했다.

합동 측은 10일 서울 총회회관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김용대 목사, 이하 이대위) 주최로 ‘이단 대책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대위 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성명서 취지에 대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가 상영된 이후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며 “이대위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과 긴급성을 의논한 다음, 총회장님께서 긴급히 (성명서 발표를) 시행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오늘 성명서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단·사이비 세력에 대한 방어와 정통 교회가 지칫 이런 상황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교단의 입장이 명확해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성명서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이대위 위원장 김용대 목사 명의의 발표였고 이

날 권 총회장이 직접 성명서를 낭독했다. 권 총회장은 “비진리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합동 측은 성명서에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이단·사이비의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저속한 실체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합동 측은 “이단·사이비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단·사이비는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들을 미혹해 개인을 피해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이단·사이비를 경계해 온 한국교회는 그들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사이비로부터 성도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한국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단·사이비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다짐한다. 총회는 지금껏 해왔듯이 한국교회 최전선에서 이단·사이비와 맞설 것”이라고 했다.



예장 합동 이단 대책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이대위 위원장 김용대 목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CHTV 김삼고 PD

아울러 합동 측은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이단·사이비를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을 노리는 캠퍼스 내 이단·사이비의 접근에 주의할 것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 이단·사이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는 “오늘 새벽까지 넷플릭스 다큐(<나

는 신이다>)를 보면서 저렇게도 가짜들은 아리따운 우리 미래세대 젊은이들의 몸과 영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구나(하고 생각했다)”고 했다.

오 목사는 “<나는 신이다> 다큐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사랑을 받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가짜들을 척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 “챗GPT, 결국 정보의 조합... 신학교는 ‘생각하는 존재’ 길러야”

## 개혁신학포럼, 기독교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논의

한 신학자가 신학교 졸업식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ChatGPT(챗GPT)에게 마태복음 9장 9절을 본문으로 ‘소명’이라는 주제의 설교문 작성을 요청했다. 약 15초 만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관창은 설교문이 제시됐다. 길이가 짧아 5,000자짜리 설교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ChatGPT는 “그 정도 분량은 전달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설교는 간결하고 집중적이어야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덕성 교수(브니엘신학교 총장)가 최근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한 내용이다. 개혁신학포럼은 ‘ChatGPT와 기독교회’를 주제로 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안암제일교회에서 제22차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전 세계적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이슈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ChatGPT가 기독교계, 특히 신학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 ChatGPT, 결국 ‘영성’ 가질 수 없어  
‘ChatGPT와 미래사회’를 발제한 최덕함 교수(마스터스세미너리 책임교수)에 따르면 ‘기계화’, ‘전기’, ‘인터넷’ 혁명에 이어 오늘날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다.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일컫는 말로, 모든 것이



한국개혁신학포럼에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사무총장 이희수 교수, 최덕함 교수(마스터스세미너리 책임교수), 조덕영 교수(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최덕성 교수(브니엘신학교 총장)가 토론하고 있다. © 송경호 기자

손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 교수는 AI에 대해 “한 마디로 인간들이 만든 백과사전의 총합”이라며 “모든 사전의 내용들이 컴퓨터에 지금도 입력되고 있고, 이러한 학습을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했으나, 이렇게 AI에게 도움을 받다가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AI는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신학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라며 “그러나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이런 길이 아닌, AI에 의존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 정보 양보다 분석과 종합적 창의력 중요  
‘ChatGPT와 신학교육’을 발제한 최덕성

교수(브니엘신학교 총장)는 “빅데이터, 즉답 인공지능은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길러낸다. 비판적 사고능력, 곧 ‘생각하기 기술’은 ChatGPT의 영역이 아니다. ChatGPT는 ‘암기-학습하기’ 구조의 결과이며, 기계학습에 의한 축적된 데이터를 정리해 치밀하게 짜깁기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을 온전히 읽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견인해 온 창의적 이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날 목회

와 신학 작업에는 암기력이나 지식 또는 정보의 양보다 분석, 비판, 종합, 창의적 적용으로 이어지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목회 현장은 신학도를 ‘생각하는 존재’로 훈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사람이 인공지능에 의존하면 분별력, 판단력, 창의력 등이 둔해진다. 마음이 판단할 문제를 기계에 맡기면 그 기계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필요나 질문에 대한 최상의 응답인지를 분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ChatGPT는 양날의 칼이다. 신학교육이 제공하는 분석력, 비평력, 종합력, 창의적 응용력, 문제해결 능력을 구축한 자의 손에서는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술적인 글쓰기, 깊은 사색, 독서, 활기찬 토론에서 얻는 논리성, 비평력, 창의성을 배양하는 방식의 신학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 한국 헤민병원

#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3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 릭 워렌 “여성 목사 안수 생각 바꾼 성경구절 3가지”

전 새들백교회 담임이자 창립자인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최근 성경에서 여성이 목사직을 맡는 것이 허용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세 구절을 제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새들백교회는 최근 남침례회(SBC)에서 여성을 교육목사로 임명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됐다. 교회는 올해 말 이같은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워렌 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는 앤디와 스테이시 우드 목회자 부부가 이끌고 있다.

전 SBC 윤리와종교자유 위원회의 러셀 무어 위원장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워렌 목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성경에 겸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최고의 교회는 탄생 당시의 교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오래 전에 떠났다. SBC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라며 “이제 우리는 해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는 3년 전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이 용납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인용했다. 대위임령으로 알려진 이 구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

워렌 목사는 “우리는 대위임령이 모든 사

람을 위한 것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대위임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상명령에는 ‘가라’, ‘제자를 삼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라는 네 가지 동사가 있다.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다.

그가 인용한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장에 설명된 대로 성령이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로 내려와 참석한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워렌 목사는 “우리는 여성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여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안다”라며 “우리는 여성들이 혼합된 청중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설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순절날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설교했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다 때 요엘 2장 28절(“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의 구약 구절을 인용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세 번째 증거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17절로,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



릭 워렌 목사. ©유튜브 캡처

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예수께서 복음의 첫 전파자로 그녀를 택하셨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여러분이 나와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다”고 강조하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0년 동안 교회는 문화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왔지만, 그것을 ‘당신은 침례교인인가?’에 대한 시험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했다.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가 오는 6월 SBC 총회에서 제명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냥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느낌도 있다”라고 답했다.

워렌 목사는 “나는 이 종교재판으로 겁에 질려 죽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 일어서야 하며, 은사와 지도력이 방해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경건한 남침례회 여성들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무어 전 위원장에게 “죄, 인종 차별, 성적 학대, 기타 성적 죄 등으로 인해 교회가 SBC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이 목사로 섬기는 것은 그것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죄 때문에 추방해야 한다. 우리는 교단의 증언을 해치는 교회를 쫓아내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증언도 해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CP에 따르면, 남침례회의 여성 목회자 안수 금지에 대한 지지자에는 그레이스 바이블 신학교(Grace Bible Theological Seminary) 오웬 스트라젠 교수가 포함된다.

스트라젠 교수는 새들백교회가 지난 2021년 세 명의 여성을 목회자로 안수했다는 발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2장 9-15절을 인용했다.

스트라젠 교수는 “여성 목회자를 긍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렌 목사는 지난 9월 새들백의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고, 새들백이 교육 목사로 밝힌 앤디 우드 목사와 스테이시 우드 목사가 그 뒤를 이었다.

강혜진 기자

## 美 앨라배마 대형교회, 교단의 신학적 방향 우려해 UMC 탈퇴



지난 3월 5일 앨라배마주 도선에 소재한 커브넛트연합감리교회의 카일 가틀린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대형교회가 신학적 방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하기로 투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천6백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도선(Dothan)의 커브넛트 연합감리교회(Covenant UMC)는 최근 교단 탈퇴를 요구

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현재 교인 406명이 탈퇴에 찬성했고 64명이 반대했으며 4명이 기권했다.

커브넛트 UMC 카일 가틀린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탈퇴를 원하는 주요 요인에는 신학적으로 교단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일부 주교들이 금욕적이지 않은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 결합 축복을 금지하는 UMC 장정의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CP는 전했다.

가틀린 목사는 “우리는 성공회 지도자들이 규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규율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관할 구역과 다른 곳에서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례 총회에서는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교회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탈퇴의 다음 단계는 오는 5월 7일 UMC 앨라배마-웨스트 플로리다 연회가 탈퇴하기로 투표한 교회를 비준하기 위한 회의를 여는 것으로 진행된다.

커브넛트 UMC 지도부는 UMC에 대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대안으로 출범한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가틀린 목사는 “행정위원회는 16대 2의 투표로 GMC 가입을 권장한다”라며 “지도자들은 교회가 1979년부터 함께 사역해 온 교회

와 목회자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역 교회가 목회자 임명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지역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보유하고, 모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3월 19일 GMC에 가입하라는 교회 지도부의 제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또 다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앨라배마 현지언론인 WDHN에 따르면,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의 약 600개 교회 중 55~60개 교회가 교단 탈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UMC는 동성혼과 동성 관계에 있는 개인의 안수를 금지하는 장정 규칙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쟁에 휘말렸다.

UMC 총회에서 규칙을 변경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했지만,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많은 감독과 목회자들은 규칙을 따르거나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 美 리젠트대, 봄방학 중에도 예배... 애즈베리 부흥 동참

### “하나님께서 Z세대를 당신께 이끌고 계신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젠트대학교(Regent University) 학생들이 간증과 성경적인 권면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리젠트대 학생들은 켄터키주 애즈베리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리젠트 캠퍼스 사역 책임자인 제프 그로스만(Jeff Grossmann)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대학의 봄방향이 있지만, 학생들과 교직원 및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자발적인 예배와 기도를 위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캠퍼스의 채플은 기도와 찬양을 위해 이번주 내내 열려 있었다”고 했다.

부흥회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 2명과 함께 지난달 애즈베리를 방문했던 그는 “우리는 애즈베리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 부흥이 어떤 학교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열매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리젠트대학교 학생들이 봄방학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있다. ©리젠트대학교

이어 “하나님께서 Z세대를 당신께 이끄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Z세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손실을 경험했다. 이 부흥회는 Z세대의 성년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 Z세대를 향해 ‘네가 보인다. 이 식탁에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로스만에 따르면, 리젠트대학교의 소그룹이 애즈베리에서 돌아온 후 캠퍼스 공동체는 2월 20일 월요일 저녁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는 6시에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다른 저녁 예배로

이어졌고, 학생들은 수업과 중간고사 일정에 따라 예배를 오갔다.

그는 “밤새도록 학생들이 이끄는 예배는 보좌 앞에 예배하는 하늘의 소리로 점점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은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으며, 종종 눈에 눈물이 고였다”며 “약 200명이 지속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예배당 바닥에 앉아 성경을 펴고 일기를 쓴다. 매일 밤 적어도 10명의 학생들이 내게 다가와, 예배 도중 성령께서 강조하신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도

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20~30분 간격으로 밤새 이어졌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부흥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불씨를 붙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 주신 목적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성취하는 더 뜨거운 불길과 열정적 믿음”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더 큰 열심으로 해낼 것이다. 더 많은 열정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전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그분은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그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계신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닿을 내리고 그분의 소명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지난달 애즈베리대학교 캠퍼스는 약 16일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기도 및 예배 모임의 진원지가 됐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다.

강혜진 기자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토요일예배 오전 10:0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일성경구경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집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집회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코틀랜드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전 11:30(세대가 함께 하는)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크라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모임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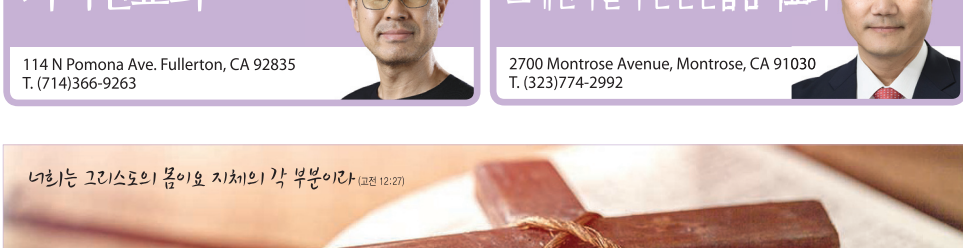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충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땀의집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침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주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7시) 오전 6시  
3부예배(주세대에) 오전 11:30 (토-일) - 한영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7시)도움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와사(WAS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 유아부, 유서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양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리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w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vcm.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YWA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 말기암 선고받아



로렌 커닝햄 목사.

### 달린 사모 "뇌에 전이되지 않아 감사... 삶의 질 우선할 것"

국제 예수전도단(YWAM)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87) 목사가 폐암 4기선고를 받았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로렌 커닝햄 목사의 달린(Darlene) 사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직 검사에 이어 CT 촬영을 통해, 폐에 느리게 자라는 일부 결절이 암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달린 사모는 "슬프게도 암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로렌 목사의 폐, 뼈, 림프계에도 암세포(4기)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뇌로 전이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기적은 로렌 목사가 상

당히 활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이러한 기적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는다. 이 일에도 모든 것들이 이례적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종양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폐의 병변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지만, 로렌 목사의 경우 매우 느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다른 병변이 성장하는 특징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로렌 목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가족으로서 로렌 목사의 에너지와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 요법이나 기타 치료를 통해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그에게 예수님, 가족, 친구, 비전이 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美 아칸소주, 초등 저학년에 동성애 성교육 금지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가 포괄적 교육 법안 '상원법안 294'에 서명했다. ©트위터/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아칸소주 사라 허커비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주지사는 8일 포괄적 교육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아칸소주는 '보편적 학교 선택'(universal school choice) 프로그램을 제정한 5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동성애나 비판적이론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칸소주 학습법'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294는 지난 7일 찬성 26대 반대 8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2025년부터 2026학년도까지 보편적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위한 주의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숙자, 이전 학년도에 실패한 학교에 다녔거나 부모가 현역 군인인 학생은 2023-2024학년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교육 자유 계정'(Educational Freedom Accounts)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 자금은 학생들에게 연계되어 있으며, 사립 학교 또는 홈스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 한 명당 받는 돈의 90%를 주정부 자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교사들에게 5만 달러의

초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칸소주는 최소 교사 급여가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학교 선택을 장려하는 것 이외에도, 법안에는 '비판적 이론'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함께 통신 및 자료들이 학생들에게 '이념'을 주입하지 않도록 교육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비판적 이론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공립학교 교사가 5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성적적으로 노골적인 자료,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국가적 교육 모델을 세울 학부모, 교사, 학생을 모두에게 역사적 승리"라며 "나는 내일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실행할 현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아이들은 곧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곳 아칸소주에서 돈을 잘 버는 직업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배교 혐의로 10년형' 이란 가정교회 지도자, 특별사면 출소

## 이슬람혁명 44주기 맞아 수만명 석방...기독교인은 3명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란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유세프 나다르카니(Youcef Nadarkhani) 목사 등 3명의 기독교인 수감자가 이슬람 혁명 44주기를 맞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세계기독교연대(CSW)에 따르면, 나다르카니 목사는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길란주의 라슈트시에서 교인 400명으로 구성된 가정교회를 이끌었다. 그는 2018년 배교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6년으로 감형되어 수감 중이었다.

나다르카니는 당국으로부터 가정교회와 시오니즘 기독교를 조장하여 국가 안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2006년 처음 구금된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가정교회 지도자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복음주의 기독교를 금지한 이란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아브라함 쿠퍼 USCIRF 부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 정권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평화적으로 신앙을 실천함에도 가차 없이 표적으로 삼았다"며 "우리는 그의 석방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투옥돼 있다. 우리는 이란의 모든 종교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는 국제종교자유연맹(IRFBA)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여, 이란 당국이 부당한 체포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연맹은 모든 사람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2018년 배교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이란 목회자 유세프 나다르카니가 최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세계기독교연대(CSW)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지지하는 37개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이 단체는 미 국무부에 전 세계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나다르카니는 배교와 전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년 국제 단체의 변호를 받아 2012년 사형 판결을 뒤집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그는 19세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0년 그는 아내 티나와 함께 체포됐다가 석방되었으며,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나다르카니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에빈 감옥에서 석방됐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이 교회의 성도인 자만 파다야와 하디 라히미는 각각 2월 8일과 15일에 같은 감옥에서 석방됐다. 세 사람 모두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다.

USCIRF는 이란 헌법이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를 불허하며, 명목상의 일부 기독교 단체만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이란에서 주요 박해 대상이다.

김유진 기자

# "동성애는 죄" 외쳤다 체포된 영 거리 설교자, 항소심 시작



데이브 맥코넬. ©CLC 제공

영국의 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되고 최초로 정부의 대테러 조직에 신고된 설교자가, 유죄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일과 10일 법정에서 복귀한다.

웨이키피드 출신의 데이브 맥코넬(Dave McConnell·42세)은 2021년 6월 8일 리즈시티센터에서 일반 대중을 '불쾌하게' 만든 혐의로 1986년 공공질서법 4A조에 의해 체포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620파운드(약 98만 원)의 비용 지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영국법에 명시되지 않은 선조 대명사를 사용했다며 대테러 신고를 당했다.

영국 검찰청의 엘리자베스 라이트(Elizabeth Wright)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갖고 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이 종교적 관점의 합법적 선을 넘어 고통과 위협이 될 때, 법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검찰은 그 범죄자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씨는 기독교법률센터(CLC)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CLC에 따르면, 그는 성전환자로 확인된 생물학적 남성과 대화한 후 체포됐다.

당시 그는 "하나님이 LGBT 공동체를 받아들이시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답했다. 이어 대중에게 "이 '신사'가 방금 질문을 했다"고 전했고, 일부 행인들은 맥코넬 씨에게 "그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맥코넬 씨는 설교를 계속했지만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대화가 점점 격해

지면서 소유물 일부를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뒤이어 등장한 경찰의 행동은 불법적이고 불균형적이었으며, 유럽인권협약 9조 및 10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변론할 계획이다.

또 '섹스 매터스'(Sex Matters) 운동가인 마야 포스테이터(Maya Forstater)와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Union) 토비 영(Toby Young) 사무총장의 전문가 증거가 발표된다.

맥코넬 씨는 "마치 전체주의적 경향을 한 것 같다. 내가 대테러 조직에 신고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받은 대우는 완전히 불합리했으며,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염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나는 내 오명을 벗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없이 리즈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맥코넬에 대한 처우는 '심히 편파적'이다. 경찰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단순히 생물학적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소지품을 도난당한 거리 설교자를 경찰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중과 전문가들이 LGBTQ 이데올로기를 축하하고 승인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기소 및 신고가 되는 우리 사회의 혼란스러운 추세를 나타낸다"고 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이 믿음을 비롯해 체포되거나 테러리스트로 보고될 염려없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세폴 OC제플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라시(Calli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만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백성우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강림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9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관리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4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버스에서 만난 튀르키예(터키) 사람과의 대화”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종종 시내버스를 탄다. 내가 사는 동네의 사람들도 보고 가능하면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집에서 출발하면서 스마트폰 시내버스 앱을 통해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소상하게 나온다. 필자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신기하게 느껴진다.

며칠 전에도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 사람이 핸드폰으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40세가량의 잘 생긴 남성이었다.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가끔 자기 나라 언어를 사용하였다. 나에게도 익숙한 언어라서 그가 터키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그에게 “뭘 하냐” 인사를 했다. 그가 살짝 놀라며 터키어를 아느냐 했다. 약간의 인사말 정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화하였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 7살 때 이민을 왔다고 했다. 터키 1.5세인 셈이다. 자기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버스로 직장을 가고 있다고 하였다. 서로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필자가 2주 전에 터키 대지진 하루 전날 터키를 다녀왔다고 했다. 그가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매년 터키를 방문한 것, 그리스도인이고 터키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서 방문한다는 것, 이번에도 동남부 15개 지역을 돌며 많은 영혼을 만난 이야기 등을 했다. 다야르바크르, 마르딘, 우르파, 수르치 등의 지역은 자신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 했다. 자기 나라의 곳곳을 한국인이 간다는 것에 궁금증을 더하며 그가 물었다. “당신 혼자서 가는가? 위험하지 않은가? 터키 음식은 좋아하는가? 가족들은 좋아하는가?” 등등 많은 질문을 받았다. 선교팀이 몇 명씩 같이 간다고, 터키 음식 맛있다고, 우리 가족도 모두 다녀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증거하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 터키인도 사랑하시고 초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 지금 터키 땅이라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터키의 영혼들을 만나러 매년 가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자녀가 루터란 교회의 유치원을 갔다고 했다. 자신도 친구 따라 교회와 몇 번 갔는데 좀 지루했다고 했다. 자기 친구 중에서도 크리스천이 몇 명 있다고 했다. 자신은 무슬림이라 말하지만, 한번도 꾸란을 읽은 적도 없고, 모스크를 간 일도 없고, 알라에게 기도한 적도 없다고 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는 무종교자라고 할 수 있다 했다. 필자는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을 제시하였다.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같이 내렸다. 서로 이메일 정보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그가 악수를 권하면서 말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해했다. 자신보다 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감사였다. 그에게 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적힌 명함을 전하고 헤어졌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만난 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를 붙여 주세요.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가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자는 다음 달 터키의 지진 피해 지역의 개척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다시 터키로 향한다. 특히 지진 지역은 쿠르드인들의 지역, 시리아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중 한 곳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바란다.

### “티레스 왕 페리클레스(King of Tires, Pericles)”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티레스의 왕 페리클레스는 그리스의 황제 안티오쿠스가 침략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페리클레스 왕이 황제의 은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충직한 신하 헬리카누스에게 국정을 맡기고 타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먼저 타르시스로 갔습니다. 기근을 맞아 고통당하는 타르시스를 위해 식량을 싣고 갔습니다. 타르시스의 클레온 왕은 페리클레스를 환대했습니다. 잠시 편안히 살던 페리클레스는 안티오쿠스 황제가 자객을 보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출항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출항하자마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모든 선원이 죽었고 페리클레스는 파도에 밀려 옷이 벗겨진 채로 펜타폴리스라는 나라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어부가 발견되어 도움을 받는데 펜타폴리스의 공주 타이사 생일을 기념하는 무술 경연대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참가했고 우승하며 타이사의 눈에 들어, 결혼하였습니다.

공주와 결혼해 잘 살던 페리클레스는 중요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안티오쿠스 황제의 사망 소식과 조국 티레스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장인과 아내에게 자신이 티레스의 왕인 것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인인 펜타폴리스의 시모니데스왕은 딸과 사위 그리고 태종의 손주와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임신 중인 타이사는 출산 후에 출국하라는 만류를 마다하고 남편과 함께 출국합니다. 페리클레스와 왕비 타이사가 탄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페리클레스에게 유모 리코리다가 찾아와 아내가 딸을 출산하고 죽었다고 전해줍니다. 폭풍우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배사람들은 배에 시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의 안전과 선원들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아내의 시신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하인들이 준비한 궤에 비단으로 싼 왕비의 시신을 넣고, 값비싼 향료를 뿌리고, 귀한 보석과 시신이 페리클레스의 왕비 타이사라는 설명을 담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시신을 던지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히스는 우울증을 앓는 페리클레스를 유쾌하게 해 줄 사람으로 마리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나는 우울한 왕을 위해 자신의 슬픈 인생을 들려주려 했습니다. 슬픈 자기 인생사를 들으면 동병상련으로 왕의 기분이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풀이 죽은 채 마리나 이야기를 듣던 페리클레스 왕이 머리를 흔들었다. 목소리와 외모가 죽은 아내를 너무 닮았다고 했다. “아가씨도 고생이 많았던 것 같소. 부모 이야기를 해주시오. 내 아내와 너무 닮았거든요.” 마리나는 “저는 페리클레스 왕의 딸 마리나입니다.”라고 대답했고 페리클레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인지 생인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페리클레스 왕은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파악합니다. 마리나는 유모 리코리다에게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페리클레스는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안심한 페리클레스는 깊은 잠에 빠져 에페시스를 방문하라는 생생한 꿈을 꾸니다. 잠에서 깬 페리클레스는 에페시스를 방문과 리스마히스를 사위로 맞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에페시스에 간 페리클레스는 세리몬을 만났고 수녀가 된 타이사를 만났습니다. 타이사는 남편이 신전에서 자신의 인생사를 읊조릴 때 “당신이 페리클레스...”하다가 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리몬이 페리클레스에게 “이 분이 바로 왕비이십니다. 제가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몬이 타이사를 만난 얘기를 하는데 타이사가 깨어났습니다. 페리클레스와 타이사는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얼싸안았고 성장한 딸 마리나도 같이 얼싸안았습니다. 뿔뿔이 헤어졌던 가족들이 행복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딸의 사위감을 인정했습니다. 행복한 결말에 마리나에게 약했던 클레온과 디오니자의 처형이 오버랩됩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유쾌한 희극 “티레스의 왕 페라클레스”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끈기와 인내로 불행 이겨낸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손 내밀어 주었던 세리몬과 리스마히스의 선행과 그들이 누리는 해피엔딩이 빛납니다.

##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CC 인증
- 기독교교육의 리더십(C.A.D.A.) 상담학부, 선교학부,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확백만: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은호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임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AACC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n)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 1차 완판 감사!!

“ 뜨거운 관심으로 1차 물량 완판 ”

# “ 2차 물량 판매 개시 ”

## 100세 시대!!

### “ 이제 굽은등을 펴세요!! ”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볼륨 UP**

**100% 국내생산**

**\$45 \$40**

지지대 없이도 탄성 있게 자세를 잡아주는 등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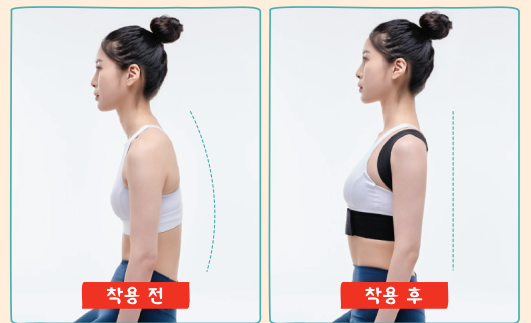


### 완판감사! 추가선물

**3월 31일 까지**

탈부착 이동이 가능한 폭신한 어깨패드 (10볼이상)

어깨패드는 거드랑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추가 구성품으로 피부가 예민해 밴드가 조이는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여 같이 착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 리비스타 멀티 발목 보호대 하나로 다양하게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발목 관절과 인대부위를 압박하여 발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 보호해 줍니다.

# 빈틈없이 꼭 잡아!

리비스타 손목 보호대 걸고 감으면 끝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루종일 내 손목을 지키는 손목지킴이 1mm 얇고 가벼움, 손목에 착~ 밀착!!

1 건설 협회 추천 최우수 제품 선정

**BEST SELLER**

리비스타 압박밴드 시리즈

발목      손목      종아리

리비스타 ANKLE SUPPORT      리비스타 WRIST SUPPORT      리비스타 CALF SLEEVES

건설현장/요식업/ 컴퓨터 사용시/골프/테니스등



#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 항산화 · 에너지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비타민C사실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려은단 비타민C는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를 사용합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 딜러 정품라벨을 확인하세요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 비타민 먹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KIDOK SHOP**

교회, 단체 행사선물 상담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www.kidokshop.com**

**213-235-6663**

도소매 타주 판매점 모집 문의  
**올코샵** 3055W. 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특별기고

#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



양 태 철 목사  
GMI선교연구소(GMRC)

에서 매 2년 마다 개최하는 포럼으로써, 쿠알라 룸푸르 열린교회(김기홍 목사)의 정성을 다한 섬김과 진행팀의 헌신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70여 명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지에서 필요한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는 이애실 사모(이순근 목사 사모)의 “어! 성경이 읽히지네!”의 사역(생터 성경사역: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사역과 이순근 목사의 “EZEMIAH 사역”(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조국 회복 사역의 일환으로, 한국의 농어촌 교회에, 미국의 한인 1.5세와 2세와 3세들이 영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농어촌 교회를 돕는 사역, 2007)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사례들을 발표하고, 필요한 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포럼이었다.

필자가 31년 째, 사역자로서(필드선교사 & GMI 본부선교사, 선교목사, 총회 선교부장, GMI 선교연구소 실장) 섬기고 있는 은혜한인교회에서는 2011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상기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렸었다(당시 필자는 선교목사이자 선교팀장으로, 상기 포럼을 준비 및 지원하였다).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KDN)의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의 목적은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32만 5143명의 한인 디아스포라(재외동포, 외교부 2021년 통계)들 가운데의 약 5,000여 한인교회(한국 내의 한인교회를 제외한 수치로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3년여 동안(2020년1월-2023년2월), 약 1,000여 개 교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됨)들이



한인디아스포라포럼(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2022.02.14.-2.17.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 디아스포라 개관(概觀)

이어서 간략하게 디아스포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는 2015년 10월, 미주기독일보에 4회에 걸쳐서 연재된, 필자의 원고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내용이 된다.

디아스포라(δίασπορά; diaspora)는 ‘흩어진’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dia’(δια)와, ‘씨앗’이란 ‘spora’(σπορά)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흩어진 씨앗’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팔레스타인 땅 이외에 이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분산’을 의미한다.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거주지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현대에는 광의적인 의미로서 자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대 세계는 세방화(globalization)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다. 세방화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전 세계 약 80억 2,090만 명 이상의 인구(2023.03.07, www.worldometers.info) 통계로는 8,020,900,000명) 중, 약 2억 8천 1백만 명에서 3억 명 정도가 세방화의 산물인 디아스포라(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2020년 통계에 나타난다(2020년 전 세계 인구의 3.6%). 이러한 디아스포라(diaspora)는 선교적 전략의 측면에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즉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위로 스스로 여러 형태의 디아스포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자발적 디아스포라(자발적 이민에 의한 이민자)와 비자발적 디아스포라(전쟁, 천재지변, 박해로 인한 난민 이민자)의 형태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전 세계 교회와 크리스천 근처로 흩어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예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勃發)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접 유럽 국가들로, 난민의 형태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다(비자발적 디아스포라). 필자는 상기 전쟁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1994년부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김교역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월 27일에 폴란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폴란드 선교사인 안드레 목사를 만나, 대접을 하면서 현황을 듣게 되었다(안드레 목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 부족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현재 약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안드레 목사는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폴란드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던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일부를 돌보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일례로, 폴란드의 옛 가옥을 임대하여, 약 30명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임대한 가옥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3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였다. 현재 3채의 가옥을 빌려서 같은 형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며, 기도도와 물질 후원을 부탁하였다. 상기 가옥에 체류하는 30여 명이 가정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어, 양 국가가 복음을 더욱 활짝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

한다(하기 내용은 2015년 10월, 미주기독일보에 4회에 걸쳐서 연재된, 필자의 원고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내용이 된다). 디아스포라(δίασπορά; diaspora)는 ‘흩어진’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dia’(δια)와, ‘씨앗’이란 ‘spora’(σπορά)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흩어진 씨앗’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팔레스타인 땅 이외에 이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분산’을 의미한다.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거주지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현대에는 광의적인 의미로서 자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현대 세계는 세방화(globalization)의 세계로 표현할 수 있다. 세방화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어이다. 전 세계 약 80억 2,090만 명 이상의 인구(2023.03.07, www.worldometers.info) 통계로는 8,020,900,000명) 중, 약 2억 8천 1백만 명에서 3억 명 정도가 세방화의 산물인 디아스포라(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2020년 통계에 나타난다(2020년 전 세계 인구의 3.6%). 이러한 디아스포라(diaspora)는 선교적 전략의 측면에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즉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위로 스스로 여러 형태의 디아스포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자발적 디아스포라(자발적 이민에 의한 이민자)와 비자발적 디아스포라(전쟁, 천재지변, 박해로 인한 난민 이민자)의 형태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전 세계 교회와 크리스천 근처로 흩어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예로, 2022년 2월 24일에 발발(勃發)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인접 유럽 국가들로, 난민의 형태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다(비자발적 디아스포라). 필자는 상기 전쟁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1994년부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김교역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월 27일에 폴란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폴란드 선교사인 안드레 목사를 만나, 대접을 하면서 현황을 듣게 되었다(안드레 목사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 부족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현재 약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안드레 목사는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폴란드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던 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일부를 돌보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일례로, 폴란드의 옛 가옥을 임대하여, 약 30명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임대한 가옥을 수리해 주는 조건으로, 3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였다. 현재 3채의 가옥을 빌려서 같은 형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며, 기도도와 물질 후원을 부탁하였다. 상기 가옥에 체류하는 30여 명이 가정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어, 양 국가가 복음을 더욱 활짝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의 주제로, 필자는 지난 2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관한 내용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다룬 후,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에 관하여 나누고자 한다.

◆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필자는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렸던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KDF, Korean Diaspora Network Forum) 특강 강사(“GMI & 세계 선교현황과 전략”)로 첫날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번 모임은 2004년, 이순근 목사에 의하여 시작된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Korean Diaspora Network, KDN)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백분율	2019년 대비
총 계	7,292,485	7,539,821	7,493,587	7,325,143	100%	-2.25
동북아시아						
일본	855,725	818,626	824,977	818,865	11.18%	-0.74
중국	2,585,993	2,548,030	2,461,386	2,350,422	32.09%	-4.51
소계	3,441,718	3,366,656	3,286,363	3,169,287	43.27%	-3.56
남아시아태평양	510,633	557,791	592,441	489,420	6.68%	-17.39
북미						
미국	2,238,989	2,492,252	2,546,982	2,633,777	35.96%	3.41
캐나다	224,054	240,942	241,750	237,364	3.24%	-1.81
소계	2,463,043	2,733,194	2,788,732	2,871,141	39.20%	2.96
중남미	105,243	106,794	103,617	90,289	1.23%	-12.86
유럽	734,702	739,826	687,059	677,156	9.24%	-1.44
아프리카	11,583	10,853	10,877	9,471	0.13%	-12.93
중동	25,563	24,707	24,498	18,379	0.25%	-24.98

2021 재외동포현황 연도별 현황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우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lo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Cooking M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한다(러시아는 전국민의 41%가 정교회(988년) 교인으로 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의 72%가 정교회 교인으로 되어 있다).

디아스포라에 관한 구약적인 배경은 창세기 1장 28절을 들 수 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서 흠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하와와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내어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사이의 최초의 디아스포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혼란함과 함께, 지면으로 흠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로 인하여,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뉘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고자 함으로 인한, 흠어짐으로써 이는 흠어진 자료서의 디아스포라적 개념이다.

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축복의 근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경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의 징벌의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선교 전략적인 흠으심으로 볼 수 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하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아브람이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집을 떠나게 된 것으로서, 이 역시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본다.

또한, 신약성경에는 3회에 걸쳐서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단어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 7:35, 야고보서 1:1, 그리고 베드로전서 1:1이다. 베드로전서 1:1에는 베드로가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명시하였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타향에 흠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였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2:37-40의 '대계명'(the Great Commandment)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를 위하여,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8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마치 나그네와

디아스포라(diaspora)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분향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신약 성경 전체는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수평적 디아스포라(horizontal diaspora)의 인생들이 수직적 디아스포라(vertical diaspora), 즉, 수직적 순례자로 살아가야 함을 영적인 관점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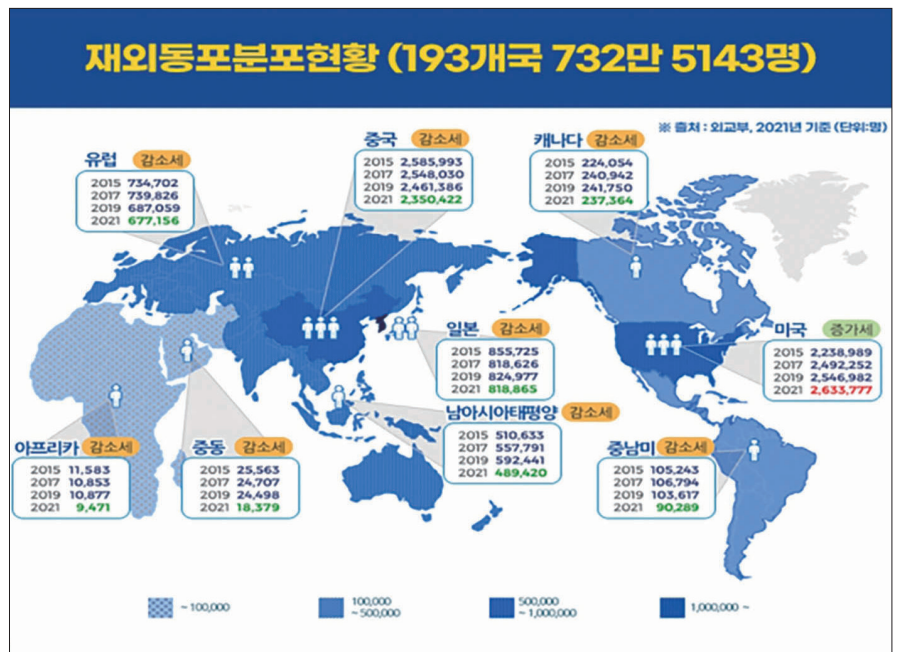
◆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

디아스포라 선교는 마치 민들레 씨가 온 땅에, 바람을 타고 흠어져 떨어져, 그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디아스포라의 헬라어의 원 뜻에는 '흠어진 씨앗'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디아스포라 선교는 복음의 생명력을 간직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흠어져, 그 땅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해는 특별히 재로한인(在露韓人) 디아스포라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가 된다. 1863년, 기근과 재난을 피해 연해주 남쪽 지신허(地新墟) 마을로 이주한 13가구의 재로한인(在露韓人) 디아스포라(세계한민족문화대전, www.okpedia.kr 참조)가 현재는 약 55만 명이 되며, 구소련 전역에 흠어져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13만 명 정도가 한국에, 여러 목적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고려인"(高麗人)이란 명칭의 사용은 1988년 6월에 "전소련고려인협회"가 결성되면서 부터로 보며, "조선(朝鮮)이나 "한국(韓國)이 아닌 중립적인 의미가 된다. 이러한 고려인들 가운데의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1990년에 구소련의 문이 열렸을 때,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의 통역으로 동역을 함으로 인하여, 빠른 시간에 복음이 구소련 전역에 확산되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31년째 섬기고 있는 은혜한인교회의 구소련 선교도, 그 일례로 볼 수 있다. 1990년 3월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다섯 가정을 구소련 전역에 파송하고, 1992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졸업생들을 통한 교회 개척들이 구소련 전역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2,500여 명이 졸업(대학원 졸업생은 200여 명)하게 되었고, 그들 졸업생들을 통하여, 한



재외동포분포현황

때는 2,000여 교회가 구소련 전역에 개척되었으며, 현재는 약 1,000여 교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필자는 1993년 1월 1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구소련 선교센터 실무책임자로 4년 반을 사역하였었다). 이 후, 모스크바 신학교(대학원대학교) 분교가 이스라엘, 한국, 독일, 미국에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불가리아, 터키, 일본 등 러시아어권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곳에, 분교가 계속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오는 5월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미국에서 창립 41주년을 맞게 되는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는 현재 주님의 은혜로, 59개국에 327명 선교사가 사역 중이며, 20개국에 신학교가 있다).

필자는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셉의 고백을 떠올린다(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구소련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신 것으로 믿는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전 세계 193개국에, 흠어져 살고 있는 732만 5143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하여, 약 2억 8천 1백만 명에서 3억 명 정도의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 중의 크리스천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즉,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세계관을 잘 습득한 후,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신의 불신자 국민들과 현지 불신자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서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민족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본다.

아울러,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80% 이상의 사람들에게(추산이 되며, 정확한 숫자는 오직 주님만이 아심), 구원받은 20% 미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전 세계 인구를 5명으로 볼 때, 구원받은 수를 1명 미만으로 보기에(推算的觀點),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1명이 4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전도와 선교로). 이는 "All to All"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가 선교지이기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전 선교지를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복음 받아들이야 하는 80% 이상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80억 인구의 80% 이상은 64억 이상이 된다. 즉, 이들은 ①회교도(약 20억 명), ②힌두교도(약 10억 명), ③불교도 & 부족종교도(약 10.5억 명), ④명목상 기독교인, 기독교 이단(약 8.5억 명), ⑤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사신론자(약 15억 명)로 볼 수 있다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3, www.globalchristianity.org 참조).

스위스의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에밀 브루너(Emil Bruner)가 말한 "불꽃은 타오르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고백이 교회로서의 전 세계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과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 아멘!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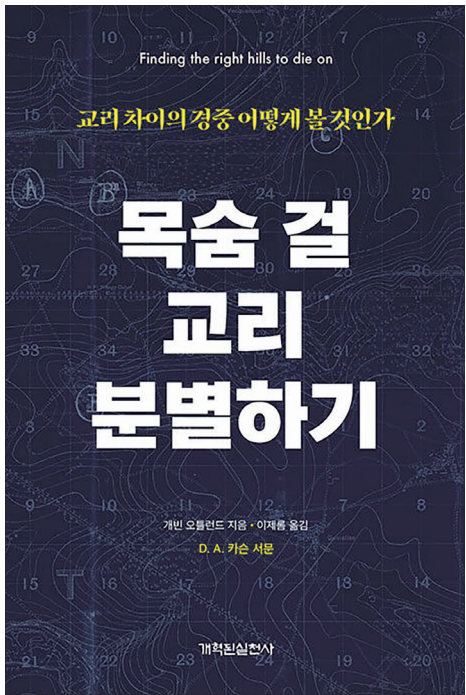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진리로 연합하는 데 필요한 지혜 찾기

# 교회, '교리' 때문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려면



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이들을(거짓 교사)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시작으로 연합한 교회가 함께 결의한 신조는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이 당시 가톨릭과 연합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를 가졌을까? 19세기 영미 복음주의에서 일어난 에큐메니칼 운동과 오늘날 WCC가 연합을 위해 타협하는 교리적 차이는 충분히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완벽한 해답을 줄 사람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개빈 오틀런드는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 교리 차이의 경중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려 한다.

책의 원서 제목은 'Finding the right hills to die on'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곳과 싸우지 말아야 할 곳을 바르게 찾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책은 J. D. 그리어, 러셀 무어, 제러드 윌슨, 브라이언 채플, 샘 올베리, 마이클 리브스 등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저자들의 추천을 받았다.

먼저 저자 오틀런드는 교리적 분파주의와 교리적 최소주의가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알린다. 계속 교회가 찢기는 것은 연합을 파괴하고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그러뜨린다. 반대로 '교리 말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자'는 것도 듣기엔 좋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저자가 결론에서 밝힌 '신학적 겸손'이 두 가지 위험한 진영에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나만 옳다는 교만이 교리적 분파주의를 만들어내고, 연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리들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교리적 최소주의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리 차이의 경중을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①1순위: 복음에 본질적인 교리 ②2순위: 교회의 건강과 실천에 절박하게 중요한 교리(그리스도인이 나누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교리) ③3순위: 기독교 신학에 중요하나, 그리스도인 사이가 분열되는데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교리 ④4순위: 복음을 증거하고 공동으로 사역하는데 있어 중요하지 않은 교리.

앞서 말한 것처럼 오틀런드는 성경 모든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이유를 연합 즉 교회가 하나 되는 데 반드시 차이가 없어야 하는 교리, 차이에 관하여 계속 논의해야 하는 교리, 차이가 있어도 하나 될 수 있는 교리, 교회의 연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교리를 분별하려는 것임을 강조한다.

모든 독자가 저자의 분별에 순응할 것이



율리우스 뢰브너(Julius Hübner, 1806-1882)가 그린 마르틴 루터와 요한 에크의 교리 논쟁 (1863-1866). 제목은 'Deutsch: Disputation Dr. Luthers mit Dr. Eck(1519)'.

라 생각하진 않는다. 특히 2순위 교리의 예로 든 세례(유아세례, 신자 세례), 은사(지속론, 중지론), 교회 내 여자의 역할(상호보완론, 평등론), 그리고 3순위 교리로 예를 든 종말론(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창조(의 날(문자적 6일, 그 외 견해)에 관한 저자의 분별과 그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서 독자는 '이런 교리적 차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와 다른 분별을 가진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와 교리적 차이를 논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2·3순위 교리에 관하여 우리는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견해가 얼마나 또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는지 잘 알아

야 한다. 그리고 신학적 겸손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목숨 걸고 서로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원수 마귀와 거짓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 사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교회는 끊임없이 논의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엔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개빈 오틀런드의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그 겸손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한다.

조정목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  
개빈 오틀런드 | 이재룡 역  
개혁신실천사 | 208쪽

### 교리 차이의 경중 어떻게 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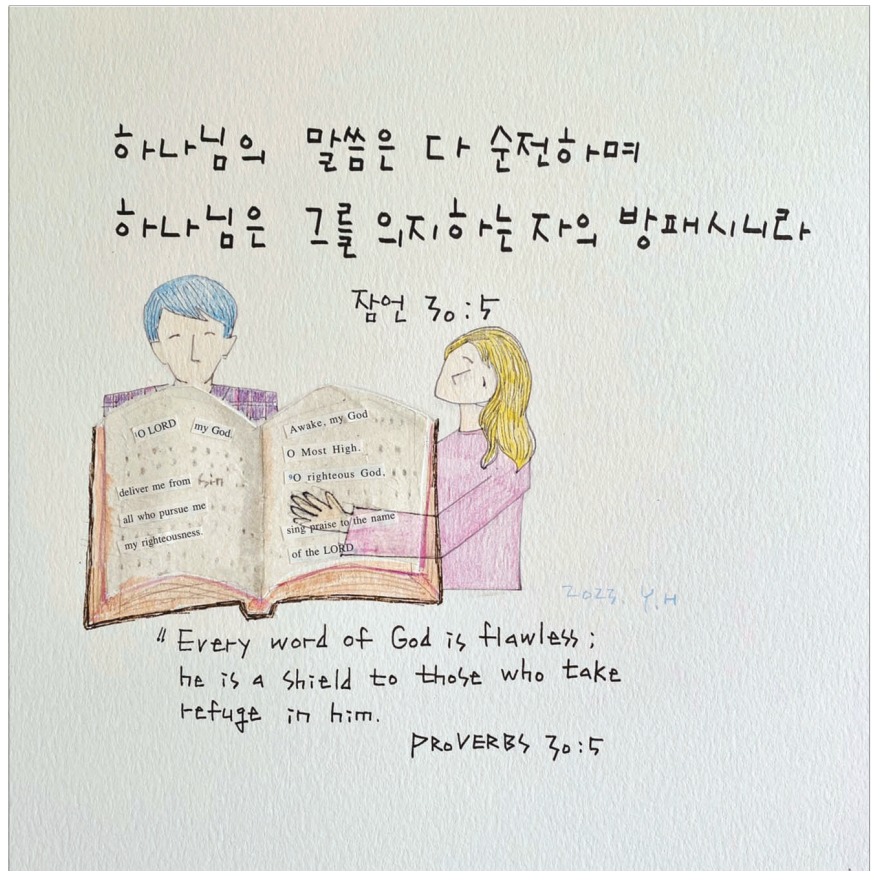
목숨 걸 교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개빈 오틀런드는 중요도에 따라  
교리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제안한다

저자가 말한 교리 차이의 경중을 측정하는 '신학적 선별작업(theological triage)'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의 하나 됨을 추구하려는 선한 목적과 교리의 정결함을 추구하려는 선한 목적이 끊임없이 재고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소중하다. 중요하지 않은 교리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선별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불필요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루신 아름다운 연합을 제자들이 닮기를 원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개신교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연대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있어 '로망'은 교단으로 구분되지 않고 완벽한(?) 연합을 이룬 1세기 초대교회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초대교회도 심각하게 잘못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녹용,  
한국 비무장 지대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 인삼.

유한건강생활  
New Origin

### 전녹용 마일드

녹용의 분골부터 하대까지 전체를 담은 뉴질랜드산 전(全)녹용과 23가지 전통원료를 함께 담아낸 건강 한 포.

전녹용 마일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
- ✓ 원활한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 ✓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체력 저하를 느끼는 직장인
- ✓ 여행, 출장, 운동 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 ✓ 고급스러운 선물용 제품이 필요하신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cellreon.com  
인터넷 검색창에 "셀리온"을 입력하세요!

셀리온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738-1188
매	부메나	소스 1층	714-523-8100
처	엘배인	시온마켓 정문 왼편	949-800-8788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연니버스' <정이> (3)

# 넷플릭스 <정이>, 기독교의 '영혼' 에 도전하는 문제작

연상호 감독 식 트랜스휴머니즘,  
기독교적 인간 이해 해체 시도해  
인공지능 발전 더해 의존할수록  
기독교 세계관은 설 자리 잃을 것

◆정신전송과 신도: <공각기동대>에 표현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일본식 영혼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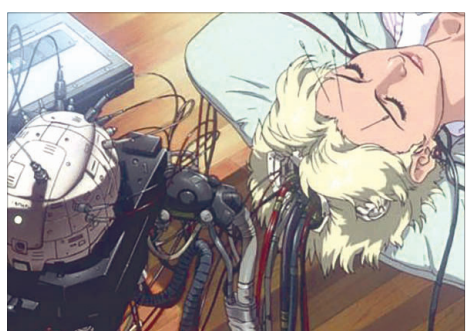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이>에 등장하는 정신전송 기술에 대한 묘사, 그리고 전송된 정신이 원본의 재림이거나 원본과 동격의 정신체라는 메시지는 서구 대중문화계에서 플라톤 철학의 환생론을 계승하지만, 동양 대중문화계에서는 다른 한 가지 사상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 바로 신도의 정령신앙에 깊게 영향받은 일본 불교의 윤회론이다.

2000년대 이후 세계 대중문화계에 정신전송 기술이라는 소재를 크게 유행시킨 작품은 일본에서 나왔다. 바로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은 시로 마사무네의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파트레이버> OVA 시리즈 등으로 일본 내에서 주로 명성을 쌓던 오시이 감독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이다.

특히 <매트릭스> 시리즈 감독이었던 워쇼스키 형제가 <공각기동대>의 '의체화(정신 복제 및 전송)' 기술이라는 설정에 매료되어 <매트릭스>의 가상공간 속 캐릭터 설정에 적용한 일화는 영화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이다.

<공각기동대> 이전에도 의체화나 정신전송과 비슷한 설정을 가진 영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로보캡>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복제된 정신을 데이터와 알고리즘 형식으로 전환해 여러 몸으로 옮겨탈 수 있게 만든다는 설정에 있어서는 <공각기동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오시이 감독은 고등학교 시절이던 1968년 일본의 좌파 공산주의 학생운동 조직 전공투(全共闘)의 치열한 저항운동에 매료되었던 인물이고, 평생 좌익 공산주의 사상을 고수하며 이를 자신의 작품 속 세계관에 다양



오시이 마모루의 대표작 <공각기동대>의 정신전송 장면.

한 방식으로 반영한 인물이다. <공각기동대>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 속에 투영된 오시이 감독의 인간 이해를 들여다보면, 일본의 전통적 영혼 이해와 유물론적 인간 이해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전통적 인간 이해란 기본적으로 신도의 정령사상에 바탕을 둔 불교 윤회론이다. 일본 정령사상은 그리스 고대 종교의 물활론(hylozoism)과 유사한 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에 영혼(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중심에 둔다. 길가에 풀 한 포기, 돌맹이 하나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심지어 인간이 만든 도구들에도 정령이 깃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물활론과 일본 신도의 정령 사상은 인간의 영혼의 위치를 놓고 확연한 견해 차를 보인다. 서구의 물활론은 확연하게 인간중심적이다. 인간의 영혼과 다른 사물의 영혼 사이의 존재적 격차를 수긍하고 인간의 영혼을 우위에 둔다.

반면 신도의 정령사상은 중국 도교의 기(氣) 사상과 유사하게 인간의 영혼이든 자연 만물의 영혼이든, 기본적으로는 우열이 없다고 믿는다. 정령은 단지 그것이 깃드는 신체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물질적 기운이라는 것이 신도의 일반적인 정령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불교의 만물일여(萬物一如) 사상과 함께 맞물려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인간과 자연의 이해를 형성하였다.

◆정신전송과 유물론: 오시이 감독의 영혼 이해를 계승한 연상호식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일본의 전통적 정령 이해에 따르면 로봇은 당연하게도 인간과 동격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인간 신체보다 더 탁월한 기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안에 정령이 깃들면,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정신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이 일본인들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일본이 로봇 메카닉 애니메이션에 열광하고, 실제로도 로보틱스나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사상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오시이 감독은 여기에 더해 유물론적 인간관을 추가했다. 정신을 순전히 신경계 내부 물리적 작용의 산물로 보는 물질주의적 견해에 따라, <공각기동대>는 원본인 인간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정신 전송 기술을 소재로 삼는 영화, <정이>.

정신 패턴을 의체화하여 전기신호 덩어리로 전환된 인격을 원본 인격과 동격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그보다 진화된 인격으로 격상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 <정이>의 정신전송 기술을 살피면서 오시이 감독의 인간 이해를 논하는 이유는, <정이>의 연상호 감독 또한 <공각기동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애초 <정이>의 포스터부터 <공각기동대> 장면의 오마주인데다, 여러 설정이나 전투 장면 역시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연상호 감독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시이 감독의 작품을 즐겨봤다고 밝힌 적이 있고, 2017년 오시이 감독이 내한했을 당시 직접 대담 패널로 참가해서 오랜 팬을 자처했다. 그리고 <정이> 발표 후 인터뷰에서도 <공각기동대>를 좋아하는 사이버펑크 작품 중 하나로 지목한 적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정이>의 결말에서 복제된 로봇 인격이 별다른 학습 과정 없이 주인공 윤서현에게 원래 어머니와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장면은 복제된 인공지능과 원본 인격 사이의 동격성, 아니면 더 나아가 동일성을 수긍하는 오시이식 정신이해를 계승, 반영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런 정신 이해는 결국 성서적 영혼론과는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것이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 영혼은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특정한 동일성을 갖지만, 각 사람 영혼에 부여된 인격은 절대로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며 각자의 영혼에서 분리될 수도 없다.

이것은 기독교 내세관의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다. 인격 혹은 정신은 각자의 영혼과 영원히 함께하기에 믿음과 순종에 따른 은혜

와 보상도, 그리고 불신앙과 죄악에 따른 저주와 형벌도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감당하기로 되어 있다. 이 영혼과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해체하는 것은 곧 기독교 내세관의 해체로 이어진다.

그래서 <공각기동대>와 <정이>가 전달하는 정신 복제 및 신체 이동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반대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세에서의 은혜와 형벌에 대한 믿음마저 반박하는 사상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신전송 기술에 의한 정신의 재생 혹은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정치적 올바름(PC)을 내세우는 자들이 주장하는 삶의 고유성과 자연성, 그리고 차이의 존중이라는 메시지에 위배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지지하는 근대 대중문화계 주류 입장에서 정신전송 관련 영화나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가 탐탁치 않겠지만, 전통 기독교 영혼론과 인간 이해를 해체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얻기 좋은 소재이기에 대중문화계 내에 널리 퍼지도록 용인하는 것이다.

결연하자면, 영화 <정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과학주의적 공상들이 기독교 영혼론에 도전하는 여러 양상들을 집약해 놓은 문제작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이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대중문화계 내부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목사: 남성수/CRC 교단)에서는 함께 동역할 유초등부(Elementary)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 ■ 지원 자격

- 1. 유경험자

### ■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자기 소개서 (신앙간증 / 소명 / 목회경험 / 가족소개)
- 3. 목회자 추천서 1부

### ■ 사 례

- 1. 사례는 면접 시 안내해드립니다.

### ■ 접수 마감 및 문의

- 1. 2023년 4월 30일까지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2. 문의 전화: 714-893-1652(교회 사무실)

KCOC, member of CRC denomination, is located in Orange County.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a part-time Elementary Pastor

### ■ Qualification

- 1. Experienced pastor

### ■ Please submit

- 1. Resume
- 2. Self-introduction
- 3. Pastoral recommendation letter

### ■ Compensation

- 1. To be determined after the interview

### ■ Application due date and contact information

- 1. Please submit all documents by April 30, 2023 via email to KCOC (kcocoffice2@gmail.com)
- 2. Contact phone number: 714-893-1652(church office)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PG&E, SCE 및 SDG&E 전기를 사용하는)  
솔라를 설치 할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기회!!**

**3월 15일**까지

타사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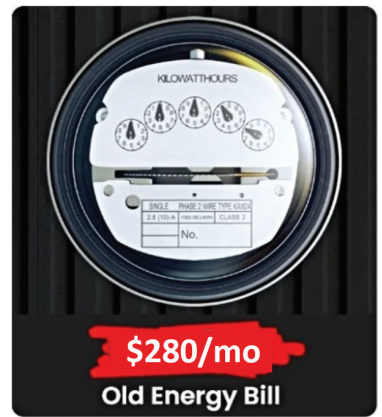
**30%** 저렴하게 설치!!

관련기사보기 >



**전기세가 11달러?!**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213-500-8000**  
**714-702-0151**

CELLS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